

엔교지 절 경내

엔교지 절은 효고현 중심부에 위치하는 쇼샤잔 산에 있습니다. 수십 채의 역사적인 건물, 기념비, 묘지, 본당과 여섯 곳의 탑두(사원 부지 내에 지어진 작은 사원)가 31 헥타르를 넘는 경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쇼쿠 대사(910~1007)에 의해 966 년에 창건된 이래 엔교지 절은 유복한 귀족과 황실의 비호를 받아왔습니다. 유력한 무장과 일반 서민도 또한 사원의 많은 건물과 예술 작품 제작에 공헌했습니다. 이 중 많은 것들이 무로마치 시대(1336~1573)에 만들어졌으며 일본의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원의 구조는 주요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심에는 마니덴(摩尼殿)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개조 쇼쿠 대사가 산에 살았던 초기 무렵에 벚나무 주위에서 춤을 추며 경문을 읊고 있는 천녀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는 장소에 지어져 있습니다. 기적적인 경문의 내용에 크게 영감을 받은 쇼쿠 대사는 보석을 몸에 두른 여의륜관음보살상을 벚나무에 조각했습니다. 살아 있는 나무에 조각한 이 보살상은 1492 년에 화재로 소실되고 마니덴은 몇 번 재건되었으나 현재도 상징적·종교적인 의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니덴은 ‘사이코쿠 33 관음 성지’ 순례의 27 번째 성지입니다. 8 세기에 확립된 이 순례길은 일본 전역 및 세계 각지에서 참배자를 계속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엔교지 절 주요 부분 가운데 한 곳에는 다이코도(大講堂), 지키도(食堂), 조교도(常行堂)로 구성된 세 채의 불당이 모여 있습니다. 10 세기에서 15 세기에 지어진 우아한 세 건물은 넓은 중정을 중심으로 ㄷ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이코도에 모셔져 있는 석가삼존상은 987 년에 쇼쿠 대사의 제자인 간나 대사가 조각했습니다. 이 석가삼존상과 사천왕상 총 7 구는 높은 대좌 위에서 중정 너머 조교도의 무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내 서쪽 끝에 있는 건물군은 엔교지 절의 성역인 오쿠노인(奥之院)으로서 가이산도(開山堂)(1673 년 창건), 후도도(不動堂)(1697 년 창건), 오토텐과 와카텐을 모시는 고후도(護法堂)입니다. 이 오토텐과 와카텐 2 인조는 창건 이래 엔교지 절을 지키는 수호신이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엔교지 절의 전승과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엔교지 절 방문자는 여섯 개의 짧은 하이킹 코스 가운데 하나를 거쳐 쇼샤잔 산을 올라야만 사원 경내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1958 년에 케이블카가 동쪽 경로를 따라 개통되어 사원을 방문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참배자가 케이블카로 산꼭대기에 도착하면 속세와 성역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니오몬(仁王門)을 거쳐 사원 경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